

하루를 시작하며



권희진
디어마이블루 서점 대표

작년 초에 서점을 하겠다고 주변에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나를 걱정스레 말했었다.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렸던 동네 서점들이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다시 늘어나며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집중돼 있던 유통을 다각화해줄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2-3년의 반짝 부흥기를 지나 고질적인 문제인 경영 악화에 시달리며 그 즈음엔 이미 하나둘씩 문을 닫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어 마이 블루 서점을 작년 7월에 오픈하고 1년 남짓한 기간

‘동네 서점 에디션’ 열풍의 이면

동안 지켜본 결과 동네 서점 업계에는 꽤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줄어들 거라 생각한 동네 서점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점을 하는 주인들의 면모도 더 다양해졌다. 본인만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색다른 운영 방식을 실험하는 곳들도 있고, 서점업계가 출판 관계자들 출신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생겼다. 작년 말에는 동네 서점을 위한 사업 개발, 정책 제안, 유통 개선 등의 일들을 공동으로 진행해 동네 서점들의 구조적 문제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가 발족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같은 동네 서점들의 제2의 전성기에 발맞춰 출판사들 역시 동네 서점들과의 제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네 서점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민음

사가 ‘쏟아지고 동네 서점 에디션(Edition)’이라는 이름을 붙여 출간한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서 이벤트성으로 시작됐던 이 기획이 이제는 출판사들이 신간을 홍보하는 사전 마케팅의 일환이자 새로운 판매 전략의 하나로 필수처럼 자리잡은 모양새다. 독자 들은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에 환호했고 인기 있는 작가들의 책은 바로 매진으로 이어졌다. 각종 책 관련 커뮤니티에는 좋아하는 작가의 동네 서점 에디션을 구하기 위해 판매처를 묻거나 이미 매진이 된 책들은 정가보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바로 상품인 책을 파는 동네 서점의 경영난을 생각했을 때 출판사들과의 이러한 제휴는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과도하리만치 경쟁적으로 느껴지는 출판사들의 동네 서점용 마케팅을 봤을 때 동네 서점의 개성과 존재 이유가 점점 희석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팔로워하고 있는 동네 서점들의 SNS가 순식간에 똑같은 동네 서점 에디션의 입고 소식으로 뒤덮이는 걸 보면, 어느 순간부터 동네 서점들이 실제적으로는 이런 에디션을 따로 출간할 여력이 있는 힘 있는 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저자들의 신간 판매처로 전락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동네 서점들이 어떤 책을 소개하느냐는 각각의 고유한 권한이고 각자 판단할 몫이다. 다만 동네 서점 에디션의 붐이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인 마당에 독자들이 동네 서점을 찾게 만드는 이유를 너무 대형 출판사, 베스트셀러 저자들의 동네 서점 에디션 판매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설

연이은 기상악화로 휘청대는 제주농업

제주농민들의 속이 많이 아쉽다. 연이은 기상악화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장마에 이어 가을대풍까지 연달아 몰아치면서 마구 할퀴고 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농민들의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제주농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가을장마와 제1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7116.5ha로 집계됐습니다. 작물별로는 감자 1020.8ha, 월동무 938.3ha, 양배추 998.6ha, 당근 1005.2ha, 콩 1460.6ha, 마늘과 브로콜리 등 기타 작물이 1693ha입니다. 감자를 비롯해 당근과 월동무 주산지인 성산읍과 구좌읍 농민들은 파종과 침수 반복으로 농사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감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이 생산량 증가, 대과비율 증가, 생육기 많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품질 저하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지감귤은 가을 햇볕을 잘 받아야 당도가 높아지는데 예년에 비해 낮아 비산입니다. 게다가 잦은 비내림으로 수분 흡수율이 높아 감귤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질 저하는 바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시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또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걱정이 큼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오늘(2일) 오 집게됐습니다. 작물별로는 감자 1020.8ha, 월동무 938.3ha, 양배추 998.6ha, 당근 1005.2ha, 콩 1460.6ha, 마늘과 브로콜리 등 기타 작물이 1693ha입니다. 감자를 비롯해 당근과 월동무 주산지인 성산읍과 구좌읍 농민들은 파종과 침수 반복으로 농사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감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이 생산량 증가, 대과비율 증가, 생육기 많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열린마당

10월 문화의 달 지역축제, 안심하고 즐기자



강인규
제주시 안전총괄과

가을을 맞아 지역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담고 상징성 있게 표현한 크고 작은 축제가 ‘10월 문화의 달’에 걸맞게 열리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서 1000명 이상의 인구가 모이는 축제는 32개이며, 이중에 10월 문화의 달에 10개가 집중해서 열린다.

대부분 주말에 행사가 겹쳐 있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다양하게 축제를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 탐라문화제(10.9-13)와 제주 마추제(10.12-13),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10.18-20)와 고마로 마추제(10.18-19)가 그렇고 이외에도 누웨마루 페스티벌(10.12-13), 제주청소년문화올림픽(10.19)도 볼거리가 다

양한 지역축제다.

인파가 모이는 행사 이면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오희나 들녘, 불과 물, 폭죽이나 가연성 가스 등을 이용하는 축제 프로그램 소재도 다양해져서 관계자들은 축제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조급한 마음을 놓지 못한다. 거기다 먹거리도 즐비해 식중독이나 바이러스 감염에도 바짝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이러한 축제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주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해 심의하고, 최종 시설점검에 나서고 있다. 가스, 전기, 소방, 교통, 의료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안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올 한해 지역축제 행사장 사고 Zero화를 위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협력과 소통으로 꾸준한 노력을 다 해 나갈 때,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지역축제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 더없는 즐거움으로 행복해 질 것이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알기 쉽고 설득력 있는 내용 준비해 달라”

원지사, 수감자세 환기 피력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원희룡 도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수감자세를 환기시키는 입장을 피력.

원 지사는 1일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감사는 도민과 외부의 시각으로 행정 내부를 점검하고 국화와 도민들에게 현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그동안 농진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하는 자기성찰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행정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알기 쉽고 설득력 있는 내용들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 조상윤기자

제주시, 태풍 대비사항 점검

○...제주시가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상황관리회의를 열고 부서별 태풍대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 고희범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상황관리회의에서는 유관기관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해 재해 취약지 등 주요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시설물 안전조치를 통한 피해 최소화해 집중기로 결정. 고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 고대로기자

영산진흥원 성희룡 예방교육

○...제주영산·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룡,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직장 내 성희룡·성폭력 등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진행. 진흥원 측은 “직장 내 성폭력과 괴롭힘이 직무수행 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예방교육으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진선희기자

매년 100명 안팎 중학생 학업중단 현실

제주도내에서 매년 100명 안팎의 중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사전 예방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업중단 중학생은 2016년 97명, 2017년 99명, 2018년 112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중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16년 0.47%에서 지난해 0.58%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학업중단 원인은 부적응 등 기타(63명), 미인정유학(32명), 해외출국(16명), 질병(1명) 등이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중학생 대안교육 ‘합성교실’ (함께 부르고 성장하

는 교실)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업중단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안교육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업중단 증가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밖 아이들을 품기 위한 정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반쪽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예방정책 이외에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대책 등 두 가지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업중단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환경이나 또래간 교우관계, 또는 학습의욕 상실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학업중단은 학생 자신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은 가정과 학교, 교육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해법 마련도 이런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19년 10월 1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일치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제주올스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 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 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獎學生 選拔公告
제단법인 광산김씨제주특별자치도장학 문화재단 정관 제4호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2조에 의하여 2019학년도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귀농협장례식장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천제공),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이름짓는집
신생아 이름짓기, 개명, 이름풀이, 신수, 택일, 궁합, 작명원칙에 따라 개성있고 멋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법학사, 행정학사, 철학박사, 역사학박사, 작명사 1급, 용산철학관, 서귀포시 신협앞 송월타운 옆집 박용산 010-4464-3238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전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사로106-7)